



박현욱 기자

phw@steelsteel.co.kr

스틸데일리

특집 2 분기 전망-판재

바닥은 어디?...힘겨운 봄 나기

- 수요 부진 속 원자재값 하락...거세진 하방압력
- 현 시중 가격 최대한 유지하는 데 주력할 듯
- 지난해 힘들었던 건설 시장, 갈수록 더 어려워
- 반등 이슈 적은 2분기 시장...철저한 대비 필요해

연초 가격 인상에 열을 올렸던 판재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식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에 가수요가 붙으면서 판매가 수월했지만, 2월에 들어선 그 기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

여기에 1분기 유일한 변수로 꼽혔던 양회마저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3월 현재 국내 판재 시장도 덩달아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는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방 산업의 수요 침체 속 저가 수입재 유입 증가로 하방압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는 견조, 건설 부진, 가전은 평타

먼저 판재 관련 주요 수요 산업을 살펴보면, 지난해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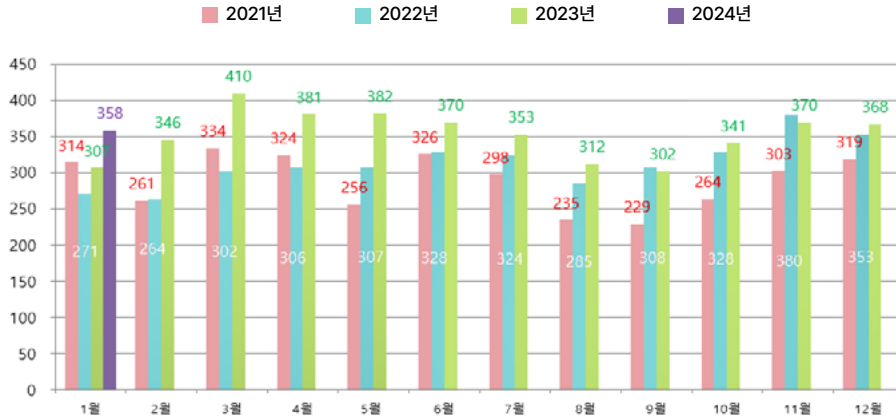
자동차 시장의 경우 지난해부터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됨과 동시에 친환경차의 인기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422만 대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 경영연구원은 올해 자동차 생산을 두고 좀 더 보수적으로 예측했는데, 상반기 217만 대, 하반기 197.5만 대로 올 한해 총 414만 5천 대의 자동차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글로벌 경기부진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그동안의 이연수요가 감소하여 회복력이 약화되면서, 신규 수요를 제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시장과 엇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되는 만큼, 2분기 자동차 산업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국내 완성차 업계 자동차 생산 추이

단위: 천대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승·상용 포함), 스틸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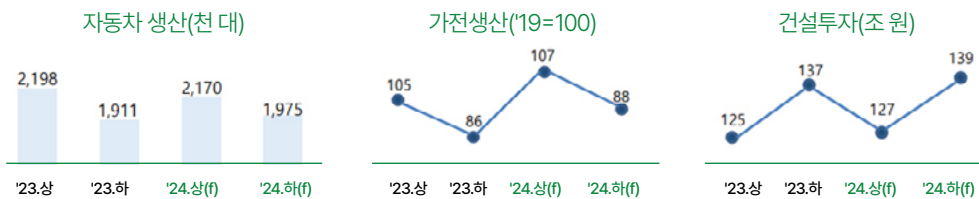


2분기 가전 업계의 상황은 그리 밝지 못하다. 경기 침체로 가전 수요부진은 예상되나, 가전사 재고 조정물량 회복과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가전 시장 수요에 기대하는 눈치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이 발표한 가전생산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05, 86에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는 각각 107, 88로 전망했다. 올해 가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산업 전망

자료: POSRI('23.12)



건설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다.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국내 건설업 신규 수주액은 8조 5,639억 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53.6% 줄었다. 2010년 10월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여기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설연)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대비 31.7% 감소한 7,568 만㎡로,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건축착공면적은 건설경기 선행지표인데 지난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올해 건설투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산연은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은 대략 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되는데, 재작년부터 착공 면적이 위축돼 건설투자가 올해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자재값 하락에 中 철강 가격 지지선도 무너지나

지난 3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폐막한 가운데 중국 철강 시장의 분위기가 냉랭하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을 목표치를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 총생산(GDP)의 3.0%로 지난해 재정적자율 3.8%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부양에 큰 자금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양회에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히면서, 철강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더 위축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내수 살리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2분기에도 중국 내수 철강재를 비롯 수출오퍼 또한 하방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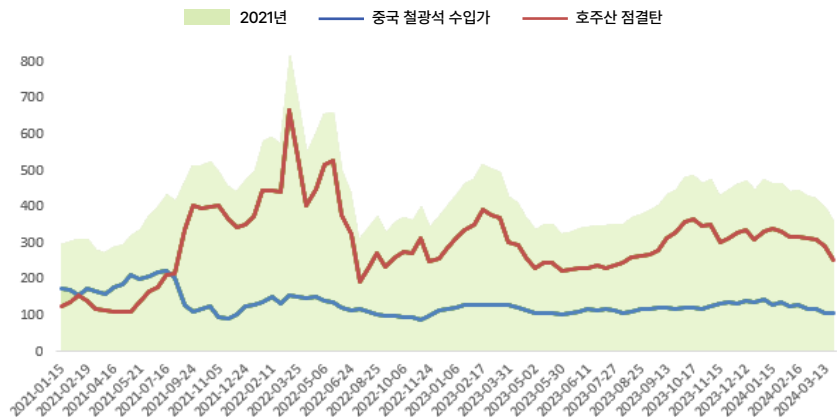
철광석, 점결탄 등 원자재값 또한 하락세다. 인도를 비롯 중국 제철소들이 완제품 수요 부진으로 철광석 비축분을 조절하면서 국제 철광석 가격은 연초 130달러 수준서 급락해 현재 톤당 100달러 수준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점결탄의 경우 겨울철 난방수요가 끝난데다가 우기가 끝난 호주 광산의 석탄 생산 재개 등이 맞물리면서 점결탄 또한 연초 대비 80달러가량 하락한 톤당 240~250달러 수준으로 약세장을 형성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특별한 생산 이슈가 없다면, 올 2분기까지 철광석은 톤당 100~110달러 선을, 점결탄은 톤당 240~26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예상되는 변수를 꼽자면, 인도의 총선 정도다.

철광석-점결탄 가격 추이

단위: 톤/달러



수입업체 관계자는 “그간 철강 가격의 키맨 역할을 했던 점결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중국밀 입장에서 도 지난해 달리 가격 방어선을 구축하기 까다로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회 이후 2분기 중국 철강 시장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당분간 중국밀들이 수출 오퍼가격반등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시중 가격 방어만 해도 성공적

국내 판재 메이커들의 가격 인상 의지는 한풀 꺾인 듯하다.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지만, 4월 공급가격 관련 정책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시장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2월과 3월 메이커들이 인상한 판매단가를 실제 가격에 반영하는 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

수급 측면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두 메이커 모두 2분기에 열연·냉연공장 정기 대수리가 집중돼 있다. 공급 차질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시중 가격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의 약세, 국내 수요 시장의 침체 등 여러 지표가 판재 가격 약세에 힘을 싣고 있지만, 메이커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급격히 악화된 수익성 등을 이유로 현재 형성된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중 가격 하락과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열연, 후판은 2분기에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상적으로 하락 국면에서는 정품과 수입대응재 가격이 점자 붙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 메이커의 기초상 두 강종 간 가격 간극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냉연도금재의 경우 열연 및 후판보다 상황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냉연강판(CR), 산세강판(PO), 용융아연도금강판(GI)의 여전히 수급 자체가 타이트한 만큼, 비교적 유통가격 방어는 타 품목 대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수요 부진으로 열연아연도금강판(HGI), 전기아연도금강판(EGI)의 경우 시중 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국내 판재 시장은 하락 분위기 속에서 메이커들은 가격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찾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

국내 열연 유통 가격 변동 추이

